

# 2018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2019.02.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결과보고서 요약문

### 2018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 1. 사업 내용

- 1) 당초계획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본방향
  - 기대효과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 2) 실제추진 현황
-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관련분야 기여도

#### 2. 예산

- 1) 예산 계획
- 2) 실제 예산 집행

#### 3.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기타

#### 4.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 결과보고서 요약문

|              |  |            |                    |
|--------------|--|------------|--------------------|
| <b>사업기관</b>  | <b>사회발전연구소</b>                                   |            |                    |
| <b>사업명</b>   | <b>중국-북한 접경지역 통일평화교육인력 양성과<br/>통일인력인프라 구축 사업</b> |            |                    |
| <b>사업책임자</b> | <b>성명</b>  | <b>소속</b>  | <b>직위</b>          |
|              | 장덕진  | 서울대 사회학과   | 교수                 |
| <b>사업기간</b>  | <b>2018.4.1.~2019.2.28</b>                       | <b>사업비</b> | <b>30,000,000원</b> |

### 1. 사업목표

#### □ 포스트평창시대를 준비하는 통일평화인력의 중요성

- 중국-북한 접경지역 통일평화인력의 중요성
  - 어렵게 마련한 벼랑 끝 대립에서 평화분위기로 들어가는 북핵-북한정세는 다양한 루트로 북한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
  - 특히, 재중동포가 집중한 연변지역은 통일 후, 북한사회의 부분 모습을 볼 수 있는 “미니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과 연고가 있는 재중동포 청년과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통일관련 지식, 정보, 인식 등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접근으로 통일 문제를 고민하고, 관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하여지고 있음.
  - 2017년의 두만강포럼의 핵심주제는 “일대일로”였고, 동북지역의 “일대일로”가 북한으로 통하는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와 “국경”, “통일”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중국국가핵심전략인 “일대일로”에 대한 지식,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연변의 중국동포들이 주동적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통일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도 필요함.

### 2. 사업의 내용

- 2015년 사업에서 연변대학 민족연구원과 공동으로 건립한 ‘두만강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연구와 교육을 통한 통일 네트워크를 구축함.
- 연변지역에 대한 종합조사를 진행하며, 연변대학에서 조사인력을 배양하

고, 남북통일관련 등 다양한 조사가 실행 가능한 조사/연구 인프라 구축  
- 본 사업단은 “일대일로” 루트를 고려한 두만강유역 초 국경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현지에서 조사하며, 연변대학교 교수진과 학술-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 3. 사업의 성과

공동연구원인 김석호 교수를 중심으로 연변지역에서 사회조사특강을 실시하여, 조사연구역량 배양, 연변대학 사회학과 리서치 센터의 설립과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길림성의 가장 중요한 사회학대회를 처음으로 연변대학교에서 주최함으로써 연변대학 사회학과의 위상을 높여 주었고, 본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성과물을 확산하였다.

2018년 12월, 서울의 사회학대회에서 <연변사회조사2016-2018> 특별 섹션을 마련하여 조사연구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게 하였다. 서울대사회학과, 중국의 샤먼대학이 함께 통일, 일대일로 연구를 협력가능하게 MOU를 체결함으로써 조사연구가 더 깊고 실속적, 장기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 사회발전연구소

## 1. 사업 내용

### 1) 당초계획

#### □ 개요

- 사업명: 중국-북한 접경지역 통일평화교육인력 양성과 통일인력인프라 구축 사업
- 기관명: 사회발전연구소
- 총 사업비: 30,000,000원

#### □ 추진배경 및 목적

- 포스트 평창시대를 준비하는 통일평화교육인력의 중요성
  - 어렵게 마련한 벼랑 끝 대립에서 평화분위기로 들어가는 북핵-북한정세는 다양한 루트로 북한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함.
  - 특히, 재중동포가 집중한 연변지역은 통일 후, 북한사회의 부분 모습을 볼 수 있는 “미니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북한과 연고가 있는 재중동포청년과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통일관련 지식, 정보, 인식 등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접근으로 통일 문제를 고민하고, 관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하여 지고 있음.
  - 한국에 재중동포유학생들이 1만 명 시대를 넘어가고 있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유학생이 6만 명이 넘지만, 대부분 교육자원이 풍부한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동북지역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유학생들이 매우 적음.
  - 특히 한국을 이끌어 갈 서울대 학생들이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중국-북한 지역에 관심을 갖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 최근 3년간 연변대학과 함께 두만강 연구소를 만들었고,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8개 국가 20여명의 재외동포들과 함께 중국-북한-러시아문화가 혼재하는 훈춘 등 연변지역에 대한 답사를 통해 귀한 경험을 얻었고, 좋은 반응을 얻음.

- 연변지역에서 매2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연변사회조사, 그리고 사회조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통계강의 및 통일관련 설문지 작성법 공동으로 설문지 작성 및 사전조사를 통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구축의 중요성을 공감하였고, 협력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
- 2018년 길림성(인구 2700만)사회학대회가 8월에 연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2차 연변사회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 연변대학 사회학과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연구, 공동으로 사회조사,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를 활용한 영향력 있는 성과물 발표를 하고자 연락이 오고 있음.
- 2017년의 두만강포럼의 핵심주제는 “일대일로”였고, 동북지역의 “일대일로”가 북한으로 통하는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와 “국경”, “통일”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중국국가핵심전략인 “일대일로”에 대한 지식,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연변의 중국동포들이 주동적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통일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도 필요함.

#### □ 기본방향

- 2015년 사업에서 연변대학 민족연구원과 공동으로 건립한 ‘두만강연구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연구와 교육을 통한 통일 네트워크를 구축함.
- 2018년 3월-6월, 3개월간 정기적으로 연변사회조사 설문지 수정 및 연변사회조사 특강 교재개발 준비.
- 2018년 7월, 계절 학기를 이용하여 ‘국경, 인구 조사방법’강의를 개설하며, 한국의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강의를 하면서 폭 넓은 공감을 형성.
- 2018년 6월~7월, 현지조사를 지도하고 설문지를 회수한 후 공동으로 설문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논문을 준비하고 2018년 연변대학 사회학과에서 주최하는 길림성사회학회에 발표하여 연구 성과를 확산.
- 2016년 연변사회조사는 길림대학 등 동북지역의 사회학과의 중시를 받았으며 중국의 중요한 연구조사에 연변대학 사회학과 참여하게 되었고, 연변지역을 CCIS조사에 표집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이런 권위 있는 자료를 연변사회조사와 비교하여 연변사회 서베이 자료 활용도 높임.
- 조사원으로 훈련한 학생들을 인솔하여 두만강지역 인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구비대칭 문제, 농촌공동화문제, 청년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함.
- ‘일대일로’ 루트를 고려한 두만강유역 초 국경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현지에서 조사하며, 연변대학교 교수진과 학술-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 □ 기대효과

- 통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조직,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2차례의 연변사회종합조사를 거쳐 사회조사경험과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면적으로 접경지역의 중국동포사회를 조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접경지역의 북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차후 두만강지역에 북한-남한-중국연변의 국제적인 연구와 협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
- 연길-훈춘-라진/선봉을 거쳐 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새로운 물류, 철로와 바다의 길이 열리면서 한국의 신 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결합되는 지 지점에서 다양한 통일평화협력의 거점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국의 연해지역의 발달한 도시와 물류가 발전한 해양도시들, 그리고 중점 대학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두만강지역이 전반 동아시아해협을 통해 신 남방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일 정               | 추진 내용   |
|-------------------|---|
| 2018년 7월 3일~6일    | 연변대 사회학과를 중심으로 연변사회종합조사를 위한 사회조사강의 및 조사지역 현장답사  |
| 2018년 9월21일       | 본 연구의 성과물 확산을 위해, 연변대학교에서 길림성사회학대회를 주최하였으며, 본 기관의 파트너단체인 연변대사회학과에서 “2016년 연변사회조사”를 발표하여 성과물을 확산시키고 북중 지역의 사회조사의 중요성을 부각 |
| 2018년 10월 25일~27일 | 연변대-서울대 통일 인프라 구축과 연구기반의 공동연구기관인 두만강연구소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대 사회학과와 연변대 사회학과의 MOU를 주선하고 공동인력양성을 위해 교환학생프로그램 가동. 북중 접경지역 답사  |
| 2018년 10월 27일~29일 | 중국 일대일로 해양교류의 거점 샤먼지역방문 및 학술교류 진행   |
| 2018년 11월 27일     | 서울대학교2018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  |
| 2018년 12월 6일      |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안명철 교수 초청 “일대일로”특강 및 전국학술대회 발표초청   |
| 2018년 12월 8일      | 2018 한국사회학대회 사회발전연구소 특별섹션 <연변사회조사2016-2018>국제세미나 참가   |

2) 실제추진 현황

□ 사업비 사용

-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 조사비로 2/3이상이 지출되면서 현장조사, 출장비 등에서 자금이 모자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연구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특강”과 현장사전답사를 진행하는데 예산을 투입하였고, 기타 예산은 서울대사회학과, 연변대학, 샤먼대학 등 파트너 대학들의 지원을 받아서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함.
-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유지들이 서울대에 기부를 통해, 본 사업에 활용하도록 표기함으로써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강력한 사명과 의지를 갖고 본 사업을 곳곳이 밀고 감으로써 통일기반 인프라 구축의 일부 성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서울대사발연의 지명도, 사업목적의 명확성, 연구자들의 사명감과 헌신성은 파트너 기관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예산을 모아서 위의 7가지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하였음.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연변사회조사 특강을 통하여 연변대학의 계량연구의 중요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함을 인식시켰고, 통일기반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길림성사회학대회에서 예산문제로 한국 측에서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조사연구논문을 발표함으로써 길림성사회학회를 통해 연구 성과물을 확산하였으며, 중국에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서울대 사회학과와 연변대 사회학과가 교류협정을 맺음으로써 통일기반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적기반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외연을 확장함.
- 샤먼대학을 통해 샤먼지역의 해양교역과 교류의 중요성, 두만강유역이 해양으로 확장하여 교류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란 큰 틀, 신 남방 정책과 신 북방 정책의 만남의 장을 학술조사연구를 통해 개척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연변대학의 파트너의 핵심책임자가 한국에서 특강, 그리고 교류를 통해

본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국사회에 각인시킴.

- 서울대학교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한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2018 한국사회학대회에서 사회발전연구소 특별 섹션을 구성하여 본 사업 성과물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사회학에서 통일/두만강유역/초 국경 협력/재외동포의 삶 등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갖게 하였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실천성과 협력방식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음.

#### □ 관련분야 기여도

- 한국의 리서치기관들이 해외에서 할 수 없는 저비용(15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신뢰도 있는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해외연구조사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음.
- 접경지역/민감한 변경지역에서 조사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마련하였으며, 신뢰-협력의 중요성,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연구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북한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차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통일연구의 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일방적인 학술교류가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파트너기관들이 한국에 와서 학술교류를 진행함으로써 호혜성, 지속성, 신뢰성을 제도화한 측면에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1) 자체평가

####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연변사회종합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예산에 넣지 않았지만, 차후 기타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함.

#### ○ 사업의 효율성

- 상호신뢰가 기반이 되어, 조사 진행, 연구발표, 교환프로그램 진행, 현장조사 매우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 다만 예산부족으로 추가조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음.

#### ○ 사업의 영향력

- 2018년 한국사회학대회에서 사회발전연구소가 구성한 특별 섹션에서 본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여 전체 사회학회의 관심을 받았고, 사회조사데이터의 중요성, 기반구축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성과물에 대한 인정 등으로 획기적인 사업이란 평가를 받았음

#### ○ 사업의 발전가능성

- 사업 종료 이후 연변대학교에서 고도로 중시하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 아직까지 기술적인 측면,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함.

####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중국의 접경지역에 대한 관리강화, 조사지역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능숙한 조사원을 배양하고 지속가능한 조사원과 통계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데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역량만으로 역부족. 이런 부분이 1,2년 정도 더 도와주어야 자립가능하다고 판단 함.

####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고려대학교 출판사에서 이 사업 성과물의 출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재외동포지역의 연구, 접경지역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 조율 중임
- 중국 연변대학교에서도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매우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10년 이상 장기프로젝트로 구상하는 단계임.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도와주면서 자립 가능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할 것임.
-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성과물을 공유하고 학술분야로 확산해야 한다고 판단 함.

## 2) 건의사항

#### □ 사업 진행 관련

- 이미 사업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관례화, 제도화되는 시점에 서울대 통일연구원차원에서 갑자기 중단될 때, 보이지 않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출구전략을 찾는 방법, 3년~5년 프로젝트 장기화, 혹은 단순한 프로젝트인지 명기가 필요하고 진출 전략과 출구전략이 동시에 사업계획에 명기되어야 한다고 판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좋다고 판단

기타

- 없음

**3. 관련자료**

대표적 사업 실적

-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성과물로 2018년 한국사회학회 정가사회학대회에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특별 섹션 <연변사회조사 2016-2018>을 구성하고 발표한 것임.
- 본 특별 섹션은 2016년부터 진행한 두 차례 연변종합사회조사, 그리고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지역의 동포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비교가능하게 샘플링을 하였고, 비교 가능한 설문문항을 추가하여 초 국경의 삶, 사회적 이동에 대하여 비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세 발표자의 발표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차후 북한지역의 동포들에 대하여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학술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연변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성공적인 지표임.
- 본 사업이 1차년도에도 연변지역종합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연변대학 사회학과의 인적인프라가 빈약하여 조사가 힘들었지만, 여름계절학기 특강, 사전조사 등을 통하여 일정한 조사원들이 육성되었고, 현지에 맞는 조사방법, 설문문항들이 추가 혹은 수정됨. 특히 북한의 사회학자들이 연변대학의 사회학과에 와서 조사방법을 배워가기에 북한-연변-남한의 공동사회조사의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 놓았다는 성과로 자평할 수 있음.

**2018**  
한국사회학회  
정가사회학대회

연변과 혐오의 사회를 넘어  
: 연대와 치유를 위한  
사회학적 성찰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 8일(토)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관(5002관, 별관(2032관))  
15000호 사설(11000)  
주최 | 사회발전연구소, 중앙-연변-사회연구회  
주관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후원 |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학계, 중앙대학교, 연변대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 정책위의 산하연구기관, 서울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연변사회조사: 연변과 서울의  
중국동포 삶에 대한 비교  
발표: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홍리민(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토론: 박 우(한성대 상성리기초교육원)

연변의 인구가동과 농촌사회의 변화  
발표: 안병철(연변대 사회학과)  
토론: 최유학  
(중앙민족대/서울대 방문학자)

연변과 서울의 조선족청년이미지  
변화에 대한 추적  
발표: 예동근(부경대 국제지역학부)  
토론: 강방문(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사회학회의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8 한국사회학회 정가사회학대회 참가 내용>